

강릉 오죽헌 조경공간 내 식재 수종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심재혁* · 이현빈* · 염정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부생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nges Characteristics of Planting Tree Species in Landscape space of Ojukheon, Gangneung-si

Sim, Jae-Hyuck* · Lee, Hyeon-Bin* · Yeum, Jung-Hun**

*Undergraduate student,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external landscaping space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planting trees for about 50 years from 1976 to Ojukheon in Gangneung. Information on past planting species was confirmed based on the landscape plan of the Ojukheon Cleanup Site in 1976 and the current status plan of the Ojukheon Tree in 2000, and analyzed in overlap with the results of field surveys. From 1976 to 2023, a total of 18 additional species of trees such as *Celtis sinensis*, *Toona sinensis* and *Lagerstroemia indica* were planted or the tree species name was unified, and three species were not identifie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planting species by Aojegag, Main house, Ojukheon, and Munseongsa in terms of traditional landscape space. And the problems were derived regarding species name (correct name and synonym), lack of information on planting and removal, and foreign species planting by period.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systematic history management based on the tree management register, including basic planting information on external landscaping spaces in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is urgent.

Key words: Cultural Heritage, External landscape, Fundamental DB, Planting manageme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강릉 오죽헌을 대상으로 하여 1976년부터 약 50년간의 식재 수종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현행화함으로써 외부 조경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과거 식재 수종에 대한 정보는 1976년 오죽헌 정화지 조경배식도와 2000년도 강릉 오죽헌 수목현황도를 기반으로 확인하였고, 현장 조사 결과와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1976년부터 2023년까지 팽나무, 참죽나무, 배롱나무 등 총 18종의 교관목이 추가 보식 되거나, 국명 정리를 통해 현행화되었고, 가이즈까향나무, 서부해당, 해당화 등 3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전통 조경 공간으로서 어제각, 본채, 오죽헌-문성사 등 주요 공간별 시계열적 식재 수종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시기별 종명(정명, 이명) 불일치, 보식 및 제거 정보 부재, 외래종 식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국가 문화재 내 외부 조경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식재 정보를 포함하여 수목 관리 대장 기반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기초DB, 문화재, 식재관리, 외부조경

I. 서론

오죽헌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중기에 지어진 사대부의 가옥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주택이다. 신사임당(1504~1551)과 율곡이이(1536~1584)가 태어난 유서 깊은 문화재이

† **Corresponding Author** : Yeum Jung-Hu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5457, South Korea. Tel.: +82-(0)33-640-2479, E-mail : zelkovayeum@gwnu.ac.kr

기도 하며,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보전하기 위해 1974년~1975년 오죽헌 정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건축물과 함께 외부 조경 공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조경공간 내 식재된 수목들에 대한 보전관리(울곡매, 천연기념물 제484호 등) 및 정비사업 등이 이뤄졌다[1]. 이후 2000년 오죽헌 외부 공간에 대한 문화재청의 식재 현황 자료가 구축되었으나[2], 지속적인 관리 이력을 반영한 현행화된 수목 식재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송정화(2012) 등은 한국 전통정원의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소유자의 사상 및 상징성을 중시한 고유 식물종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문화재를 중심으로 민간 주택 내 전통 조경공간에 대한 식재종 등 현황자료 조사 및 DB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원호(2011)는 장성 필암서원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재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식재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3]. 문화재 내 조경공간에 대한 수목 식재 특성 관련 선행연구로서, 김준연(2012)은 우리나라 대표적 원림인 담양 소재원의 수목 변천 과정을 규명한 바 있으며[4], 공재희 등(2017)은 소재원에 수목 식재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세대를 거치면서 변천해 온 수종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5]. 김묘정(2008)은 한국 전통정원에 주로 식재되는 화목의 종류와 배치원칙에 관한 연구하였고[6], 김승민(2014)은 조선시대의 고문헌과 옛 그림에 나타나는 화훼식물을 중심으로 이용과 상징성에 대해 규명한 바 있다[7]. 송정화 등(2012)은 한국의 전통정원을 고문헌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전통정원 조성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8], 진민령 등(2020)과 진혜영 등(2021)은 민가정원을 대상으로 공간구성 및 정원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유지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9][10]. 박은영(2011)은 조선시대 전통주택 마당의 사례를 통해 마당의 분화형태를 분석하였고[11], 유윤진(2015)은 전통정원과 현대정원에 관한 정원식재현황, 시설물 설치 현황, 정원면적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12]. 민가정원 외 백지성(1994)은 창덕궁 후원의 식재 현황을 동궐도와 비교 분석하였고[13], 이원호 등(2014)은 전통공간 재현을 위한 광한루원의 수목 정비방안을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연구한 바 있다[14]. 최승해 등(2015)은 경주역사유적지구에서 핵심 문화재인 경주 동궁과 월지에 분포하는 조경 식재수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15]. 현재 문화재의 조경공간에 대한 식재 특성을 규명하고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문화재의 외부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¹⁾ 아직 현행화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식재 변화 특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물로 지정된 오죽헌을 대상으로 하여

1976년부터 약 50년간의 식재 수종에 대한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식재된 수목 정보를 현행화함으로써 국가문화재 내 조경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우리나라 주택건축 가운데 가장 오래된 주거용 목조 건축물인 오죽헌은 강원도 강릉시 죽원동에 위치(37°46' 45" N, 128°52' 37" E)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7,884㎡이다. 현재 오죽헌의 공간은 어제각과 본채인 안채와 사랑채, 별채, 문성사 등으로 구분되지만(그림 1), 원래 오죽헌은 별채의 이름이다²⁾. 이 건물은 조선시대 양식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옆면에서 지붕을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오죽헌이라는 명칭은 까마귀 오(烏), 대 죽(竹), 추녀 현(軒)으로 권처균은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烏竹軒)이라 했는데, 이것이 후에 집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16].

현장조사는 2023년 3월~5월 중에 실시하였고, 20m×20m 방형구를 설정하였다. 조사 관련 문화재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였고,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하여 수목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총 9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경문과 입지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마당부터 어제각, 안채/바깥채, 문성사/오죽헌, 울곡기념관 앞마당 전체와 세 개의 단과 자경문쪽 화단, 입지문쪽 화단을 조사범위로 하여 수목조사를 실시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식재종 비교를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강원도에서 작성된 1976년 오죽헌 정화지 조경배식도와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2000년도 강릉 오죽헌의 수목현황도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강릉 오죽헌 위치 및 공간 분포도

표 1. 강릉 오죽헌 내 식재종 및 분포 현황

구분	번호	과명	종명	주수	비율(%)	전통정원 주요 화목
교목	1	은행나무과	은행나무(<i>Ginkgo biloba</i>) [†]	2	3.51	○
	2	주목과	주목(<i>Taxus cuspidata</i>) [†]	4	7.02	○
	3	소나무과	소나무(<i>Pinus densiflora</i>) [†]	5	8.77	○
	4	측백나무과	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2	3.51	-
	5	느릅나무과	팽나무(<i>Celtis sinensis</i>) [†]	1	1.75	-
	6	목련과	백목련(<i>Magnolia denudata</i>) [†]	2	3.51	-
	7	장미과	매실나무(<i>Prunus mume</i>) [†]	3	5.26	○
	8	장미과	복사나무(<i>Prunus persica</i>)	1	1.75	○
	9	장미과	자두나무(<i>Prunus salicina</i>)	1	1.75	○
	10	장미과	살구나무(<i>Prunus armeniaca</i>)	2	3.51	○
	11	멸구슬나무	참죽나무(<i>Toona sinensis</i>) [†]	1	1.75	-
	12	단풍나무과	고로쇠나무(<i>Acer pictum</i> var. <i>mono</i>) [†]	1	1.75	-
	13	단풍나무과	단풍나무(<i>Acer palmatum</i>) [†]	3	5.26	○
	14	단풍나무과	홍단풍(<i>Acer palmatum</i> var. <i>sangainum</i>) [†]	2	3.51	-
	15	부처꽃과	배롱나무(<i>Lagerstroemia indica</i>) [†]	15	26.33	○
	16	석류나무과	석류나무(<i>Punica granatum</i>)	1	1.75	○
	17	층층나무과	산수유(<i>Cornus officinalis</i>)	5	8.77	○
	18	감나무과	감나무(<i>Diospyros kaki</i>) [†]	6	10.54	○
total				57	100.00	-
관목	번호	과명	종명	면적(m ²)	비율(%)	전통정원 주요 화목
	1	측백나무과	눈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122	17.58	-
	2	측백나무과	옥향(<i>Juniperus chinensis</i> 'Globosa')	16	2.31	-
	3	미나리아재비과	모란(<i>Paeonia suffruticosa</i>)	86.75	12.5	○
	4	장미과	명자꽃(<i>Chaenomeles speciosa</i>)	16.5	2.38	○
	5	콩과	조록싸리(<i>Lespedeza maximowiczii</i>)	5	0.72	-
	6	회양목과	회양목(<i>Buxus sinica</i> var. <i>insularis</i>)	70.75	10.20	○
	7	진달래과	철쭉류(<i>Rhododendron</i> spp.)	350.5	50.50	○
	8	물푸레나무과	쥐똥나무(<i>Ligustrum obtusifolium</i>)	0.5	0.07	-
	9	물푸레나무과	개나리(<i>Forsythia koreana</i>)	13	1.87	○
	10	인동과	불두화(<i>Viburnum opulus</i> for. <i>hydrangeoides</i>)	10	1.44	-
11	백합과	실유카(<i>Yucca filamentosa</i>)	3	0.43	-	
total				694	100.00	-

■ 흉고직경 30cm 이상 대경목^(†) 포함

최종적으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된 분석 결과는 AutoCAD 21³⁾을 활용하여 디지털이징 하였으며, 시계열적 수목 식재종 변화 특성을 확인하여 중첩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명 및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17]을 기반으로 하였고, *Rhododendron*속 등 일부 종들은 변화 파악의 용이성을 위해 통합 정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목 식재 현황

오죽헌에 식재된 수목은 교목 18종, 관목 11종 등 총 29종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교목은 배롱나무 15주(26.33%), 감나무 6주(10.54%), 산수유 5주(8.77%), 소나무 5주

(8.77%), 주목 4주(7.02%), 매실나무 3주(5.26%), 단풍나무 3주(5.26%), 향나무 2주(3.51%), 백목련 2주(3.51%), 은행나무 2주(3.51%), 살구나무 2주(3.51%), 복사나무 1주(1.75%), 홍단풍 2주(3.51%), 참죽나무 1주(1.75%), 석류나무 1주(1.75%), 자두나무 1주(1.75%), 팽나무 1주(1.75%), 고로쇠나무 1주(1.75%) 순으로 식재 되었으며, 소나무 2주는 어제 각 전면부에 식재된 조형소나무이었다. 은행나무, 주목, 소나무, 팽나무, 백목련, 매실나무, 참죽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홍단풍, 배롱나무, 감나무 등은 흉고직경 30cm이상의 대경목을 포함하였다. 관목의 경우, 눈향나무, 옥향, 모란, 명자꽃, 조록싸리, 회양목, 철쭉류, 쥐똥나무, 개나리, 불두화, 실유카 등 총 11종이 식재되어 있었고, 오죽헌 대부분 건물 뒤쪽으로 분포하였는데 접근성에 제한이 있어 별도의 면적을 산출하지는 않았다. 조록싸리의 경우, 1976년도, 2000년도 도면에서는 식재 현황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 전통정원에서 주로 식재되는 화목류 중 교목은 은행나무, 주목, 소나무, 매실나무(매화), 복사나무(복숭아), 자두나무(오얏), 살구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백일홍), 석류나무, 감나무 등이었고, 관목은 모란, 명자꽃, 회양목, 철쭉류, 개나리 등이었다[6][7]. 벼과인 대나무도 제시하고 있으며, 오죽이 해당되었다.

2. 시계열적 식재 수종 변화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표 2), 1976년에 식재된 교목은 산수유, 은행나무, 청단풍, 홍단풍, 살구나무, 가이즈까향나무, 서부해당화 등 총 7종이었고, 관목은 산철쭉, 모란, 명자나무, 고려영산홍, 영산홍, 해당화, 개나리, 옥향, 눈향나무 등 9종으로 조사되었다[1]. 강릉 오죽헌 정밀 실측에 포함된 2000년도 도면과 비교했을 때 교목은 주목, 전나무, 히말라야시다, 소나무, 반송, 측백나무, 목련, 자두나무, 홍매화, 배롱나무, 석류나무 등이 추가되었고, 관목으로는 목수국, 회양목, 사철나무 등이 추가되었다. 가이즈까향나무와 산수유, 해당화는 확인되지 않았다[7].

청단풍이 단풍나무로 표기되었고, 고려영산홍, 영산홍, 산철쭉, 철쭉 등 *Rhododendron* 속의 철쭉류의 경우,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여 종별 변화 파악에는 다소 제한적 이었다. 매실나무인 울곡매의 경우, 1976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2000년에 매화나무로 구분하고 있어 과거 문헌에서 일부 동일 개체에 대한 종명 표기가 상이했으며, 누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화사업 이후 상당수의 종이 신규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과 2023년 현재의 식재종을 비교한 결과, 교목은 향나무, 팽나무, 복사나무, 참죽나무, 고로쇠나무, 산수유, 감

나무 등 7종이 추가되었고, 백목련은 목련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나무, 측백나무, 히말라야시다, 반송, 서부해당화 등 5종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형소나무가 반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목은 조록싸리, 쥐똥나무, 불두화, 실유카 등 4종이 추가되었고 목수국, 사철나무 등 2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1976년과 2023년 식재현황을 비교해보면 종명이 상이하거나, 조사 누락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식재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무엇보다 식재종에 대한 정명과 이명이 혼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명자나무는 명자꽃으로, 매화나무는 매실나무로, 히말라야시다는 개잎갈나무로, 목수국은 나무수국으로, 서부해당화는 서부해당으로 변경하여 정리하였고, *Rhododendron*속의 관목류인 산철쭉, 철쭉, 고려영산홍, 영산홍 등은 철쭉류로 묶어서 구분하였다. 약 50년간 교관목상에서 전체적으로 18종이 추가 보식되거나 현행화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이즈까향나무, 서부해당, 해당화 등 3종 확인되지 않았다. 벼과인 오죽은 1976년, 2000년, 2023년에 걸쳐 모두 확인되었다.

3. 오죽헌 주요 공간별 식재 특성

오죽헌의 공간구성은 조선시대 사대부 주택으로서, 어제각과 본채인 안채와 사랑채, 오죽헌, 문성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거거하는 건물로 주로 침전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가사일, 취미생활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사랑채는 살림집에서 남자 주인의 주생활 공간이며, 안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바깥채라 부르기도 한다[18]. 별당은 집객·독서·한유·관상 등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우리 건축의 정취와 세부 구법의 정교함이 잘 나타나 있는 공간이다. 1976년과 현재 2023년 오죽헌 공간을 비교하였을 때 어제각과 문성사의 위치가 바뀌고 안채의 복원으로 인한 외부 조경공간을 명확하게 구획하기가 어려웠으나, 건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어제각, 본채(안채, 사랑채), 오죽헌과 문성사로 구분하였다.

공간별 건축물의 변경 및 시계열적 식재종 변화 특성을 살펴보면(표 3, 그림 2), 1976년 정화사업 이후 어제각이 사랑채 북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문성사를 건립하면서 외부 공간의 변경이 있었다. 어제각 공간의 식재 수종으로서 1976년도에는 현재의 어제각 위치에 별도의 식재종이 없었으며, 2000년도에는 소나무, 석류나무, 회양목, 오죽, 2023년도에는 소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회양목, 오죽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본채의 경우, 1976년에 바깥채만 존재하였고, 안채의 복원(1996년)사업과 함께 2000년도부터 바깥채와 안채가 도면에 표시됨을 알 수 있었다. 본채 공간의 식재 수종으로서 1976년

표 2. 강릉 오죽헌 내 시계열에 따른 식재종 변화

구분	수종	Year			
		1976	2000	2023	
교목	은행나무(<i>Ginkgo biloba</i>)	o	o	o	
	주목(<i>Taxus cuspidata</i>)		o	o	
	전나무(<i>Abies holophylla</i>)		o		
	개잎갈나무(<i>Cedrus deodara</i>)		o		
	소나무(<i>Pinus densiflora</i>)		o	o	
	반송(<i>Pinus for. multicaulis</i>)		o		
	측백나무(<i>Platyclusus orientalis</i>)		o		
	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o	
	가이즈까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Kaizuka')	o			
	팽나무(<i>Celtis sinensis</i>)			o	
	백목련(<i>Magnolia denudata</i>)		o	o	
	서부해당(<i>Malus halliana</i>)	o	o		
	매실나무(<i>Prunus mume</i>)		o	o	
	복사나무(<i>Prunus persica</i>)			o	
	자두나무(<i>Prunus salicina</i>)		o	o	
	살구나무(<i>Prunus armeniaca</i>)	o	o	o	
	참죽나무(<i>Toona sinensis</i>)			o	
	고로쇠나무(<i>Acer pictum</i> var. <i>mono</i>)			o	
	단풍나무(<i>Acer palmatum</i>)	o	o	o	
	홍단풍(<i>Acer palmatum</i> var. <i>sangaienum</i>)	o	o	o	
	배롱나무(<i>Lagerstroemia indica</i>)		o	o	
	석류나무(<i>Punica granatum</i>)		o	o	
	산수유(<i>Cornus officinalis</i>)	o		o	
	감나무(<i>Diospyros kaki</i>)			o	
	관목	눈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o	o	o
		옥향(<i>Juniperus chinensis</i> 'Globosa')	o	o	o
모란(<i>Paeonia suffruticosa</i>)		o	o	o	
나무수국(<i>Hydrangea paniculata</i>)			o		
해당화(<i>Rosa rugosa</i>)		o			
명자꽃(<i>Chaenomeles speciosa</i>)		o	o	o	
조록싸리(<i>Lespedeza maximowiczii</i>)				o	
회양목(<i>Buxus sinica</i> var. <i>insularis</i>)			o	o	
사철나무(<i>Euonymus japonicus</i>)			o		
철쭉류(<i>Rhododendron</i> spp.)		o	o	o	
취퐁나무(<i>Ligustrum obtusifolium</i>)				o	
개나리(<i>Forsythia koreana</i>)		o	o	o	
불두화(<i>Viburnum opulus</i> for. <i>hydrangeoides</i>)				o	
실유카(<i>Yucca filamentosa</i>)				o	

에는 눈향나무, 모란, 명자꽃, 철쭉류, 개나리, 2000년에는 주목, 반송, 백목련, 단풍나무, 석류나무, 눈향나무, 옥향, 모란, 나무수국, 명자꽃, 회양목, 철쭉류, 오죽, 2023년에는 주목, 백목련, 참죽나무, 단풍나무, 홍단풍, 배롱나무, 감나무, 눈향

나무, 모란, 조록싸리, 회양목, 철쭉류, 불두화, 오죽 등이 각각 식재되어 있었다. 오죽헌·문성사 외부 조경공간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대경목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으며, 1976년에는 살구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철쭉류, 오죽, 2000년에는 주목,

표 3. 주요 공간구성에 따른 건축물 및 식재수종 변화

공간구성	시기	건축물	식재수종
어제각	1976년	-	-
	2000년	어제각	소나무, 석류나무, 회양목, 오죽
	2023년	어제각	소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회양목, 오죽
본채	1976년	바깥채	눈향나무, 모란, 명지꽃, 철쭉류, 개나리
	2000년	바깥채, 안채	주목, 반송, 백목련, 단풍나무, 석류나무, 눈향나무, 옥향, 모란, 나무수국, 명지꽃, 회양목, 철쭉류, 오죽
	2023년	(1996년 안채복원)	주목, 백목련, 참죽나무, 단풍나무, 홍단풍, 배롱나무, 감나무, 눈향나무, 모란, 조록싸리, 회양목, 철쭉류, 불두화, 오죽
오죽헌·문성사	1976년	-	살구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철쭉류, 오죽
	2000년	오죽헌, 문성사	주목, 소나무, 매실나무, 배롱나무, 오죽
	2023년	-	주목, 소나무, 백목련, 매실나무, 살구나무, 배롱나무, 회양목, 오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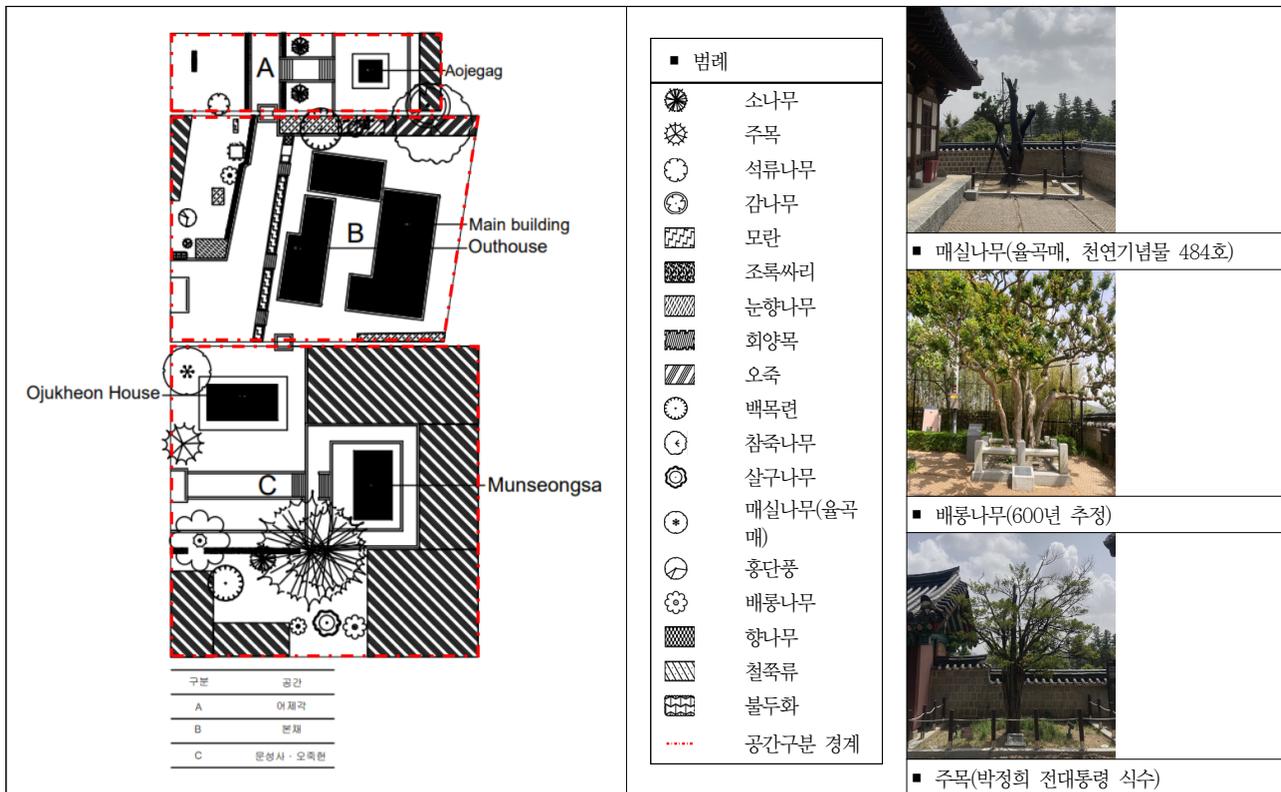


그림 2. 강릉 오죽헌 주요 공간구성별 건축물 및 식재수목 위치도(2023)

소나무, 매실나무, 배롱나무, 오죽, 2023년에는 주목, 소나무, 백목련, 매실나무, 살구나무, 배롱나무, 회양목, 오죽 등이 식재되었다. 매실나무는 울곡매(천연기념물 제 484호)이었고, 6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롱나무는 강원도 강릉시 보호수(강원-강릉-16)로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목과 문성사 주변의 소나무 역시 대경목으로 분포하였다.

이선(2006)은 전통 민간 주택정원의 조경 요소로서 사랑채

를 중심으로 한 공간과 뒷마당에 매화, 석류나무, 국화 등의 식물과 화계, 괴석, 수조 등을 배치하였다고 하였고[19], 송정화(2000)는 조선시대 사대부 주택은 사랑채 뒷마당을 중심으로 앵두나무, 감나무 등의 과수가 식재되었다고 한 바 있으며, 후면부는 주로 소나무 숲이나 대나무 숲을 배경림으로 삼았다고 하였다[8]. 어제각이 이동하고 안채가 복원되는 등 건축물의 이동 및 복원과 그에 따른 공간별 식재수목의 현황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채를 중심으로 별당까지를 별

도의 사랑채의 개념으로 본다면[8], 마당에는 감나무, 석류나무, 매실나무 등의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고, 북서측을 중심으로 후면부에 소나무와 죽림 등이 배경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유사하였다. 김모정(2008)도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에서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측면에서의 다양한 과수가 식재되고, 기능적으로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기 위해 큰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6]. 또한, 공간의 외곽을 중심으로 참죽나무, 백목련 등 10~15m의 수목이 분포하였는데 1976년 정화사업시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후 식재 관리를 통해 보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표적 문화재인 오죽헌(보물 제165호)내 조정공간에 대한 시계열적 수목조사분석을 통해 지난 50년간의 식재 수종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체계적인 식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최근 정보로 현행화하였다.

1976년 조정배식도 및 2000년 수목현황도에 의한 문헌조사(수종명 정리 후), 2023년 현장 수목분포 조사 등을 통해 1976년 교목 7종과 관목 7종, 2000년 교목 16종과 관목 9종, 2023년 교목 18종과 관목 11종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 공간 구분에 따른 식재 위치 분석을 통해 어제각, 본채 공간, 오죽헌 문성사 공간에 대한 건축물의 변경이 있었고, 197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식재 수종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식재 특성으로서 울곡매(천연기념물 제 484호), 배롱나무(강릉시 보호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목, 문성사 주변의 소나무 등 대경목이 다수 분포하였고, 우리나라 전통정원에서 식재되는 화목류 중 교목은 유실수를 중심으로 매실나무(매화), 복사나무(복숭아), 자두나무(오얏), 살구나무, 석류나무 등 12종, 관목은 모란, 명자꽃 등 5종이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 조정공간 구분을 통해 전통적 화목의 배치 원칙 중 과수 및 배경림의 구성 등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관리적 측면에서 1976년부터 약 50년간 보식과 제거 등 수목 관리 시 현행화 및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종명에 대해 정명과 이명이 혼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식재 종 기재 오류 및 참죽나무 등 대형목에 대한 기록 부재 등의 사항도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오죽헌 내 조정식재 공간에 대한 원형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1976년 이후의 자료에 기반하여 식재 종의 변화 및 전통 조정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었으나, 오죽헌 내 식재 수종에 대한 기초자

료를 현행화하였고, 국가 문화재에 대한 수목 관리 대장 기반의 이력 관리 등 식재 수종에 대한 유지 관리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훈령 제516호)에 의해 정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재의 수목 관리 측면에서는 제한적이고, 현장관리를 하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도 별도의 이력 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오죽헌 내 백목련, 실유가 등 외래종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 문화재에 대한 외래종 분포 정도 파악을 포함하여 수목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1)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16호)에 의한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한정하고 있어, 문화재 일대의 수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루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나, 별도의 수목 관리 대장 등 수목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았다.
- 주2) 보물로 지정된 강릉 오죽헌은 유적건조물/인물사건/인물기념/탄생지로 분류되며, 별당인 오죽헌 1동이 지정되어 있다(<https://www.heritage.go.kr>).
- 주3) Auto CAD 21(Autodesk Inc., 2021)

REFERENCES

- [1] 강일특별자치도(1976). 오죽헌 정화지.
- [2] 문화재청(2000). 강릉 오죽헌 정밀 실측.
- [3] 이원호(2011).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131-141.
- [4] 김준연(2013). 시대에 따른 소재원 수목의 변화에 대한 고찰.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5(6): 511-515.
- [5] 공재희, 윤숙영, 최병진(2017). 소재원의 수목식재 현황 및 시대적 변천에 따른 변화. 인간식물환경학회지, 20(1): 73-79.
- [6] 김모정(2008). 한국 전통 화목의 배치 원칙과 배치형식에 관한 연구. 농업사연구, 7(2): 249-264.
- [7] 김승민(2014).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134-147.
- [8] 송정화, 진혜영, 신지훈(2012). 한국 전통정원의 식재 배치 유형에 관한 연구.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5(4): 287-299.
- [9] 진민령, 정명석, 심지연, 이혜숙, 이정미, 진혜영(2020). 전라도 지역 문화재 지정 민가정원의 현황 및 조영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4): 25-38.
- [10] 진혜영, 박소현, 신현실(2021). 향토문화유산 중 충청지역 민가정원의 역사정원으로서의 가치와 보존 방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9(4): 77-84.
- [11] 박은영(2011). 전통주택 마당에 나타나는 정원양식의 현대적 분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28-38.
- [12] 유윤진, 조동길(2015). 한국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택정원과 현대주택정원 비교 분석.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지, 35(5): 113-124.
- [13] 백지성(1994). 창덕궁 후원 어수당구역의 공간구성과 식재에 대하여 - 동궐도를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2(11): 15-29.
- [14] 이원호, 김동현, 김재웅, 안혜인, 김대열, 조운연(2014). 전통공간 재현

- 을 위한 광한루원의 수목정비방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82-95.
- [15] 최승해, 유주한(2015). 경주 동궁과 월지의 현존 식물상과 조경식재종의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3(3): 1-12.
- [16] 이상균(2015). 강릉(江陵) 오죽헌(烏竹軒)의 조선시대 사회사(社會史)적 의미. 문화재. 48(2): 64-81.
- [17] <http://www.nature.go.kr>
- [18] 김동영(2011). 한국 중국 주거건축 공간구성 비교. 주거환경. 9(1): 13-24.
- [19] 이선(2006). 韓國 傳統 造景 植栽. 수류산방.

원 고 접 수 일: 2024년 2월 27일
심 사 일: 2024년 3월 19일 (1차)
게 재 확 정 일: 2024년 5월 17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